

## 세계 결핵의 날과 로버트 코흐

**올해** 3월 24일은 제17회 세계 결핵의 날이다.

1882년 3월 24일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Robert Koch)는 베를린 대학에서 열린 생리학회에서 결핵균 발견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무수한 재앙과 고통을 안겨준 결핵과의 오랜 싸움에서 적의 정체를 밝혀낸 위대한 개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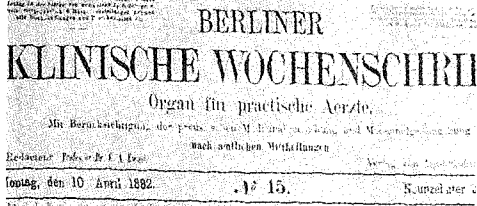
따라서 결핵균 발견 100주년이 되던 1982년부터 WHO(세계보건기구)와 IUATLD(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는 인류에게 헌신한 코흐의 생애를 재조명하고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 과거 100년간 인류는 결핵과의 싸움에서 무엇을 성취했으며 현재의 상황전개는 어떠한가 하며 미래의 좌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 세계 결핵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2년 3월 24일을 기해 채신부에서 결핵균 발견 100주년 기념엽서를, 주택은행에서는 결핵균 발견 100주년 기념주택복권을 발행했으며 대한결핵협회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과 결핵 전시회 및 비디오 상영을 가졌으며 이 행사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 로버트 코흐와 결핵균 발견

1876년 코흐는 결핵균 발견에 앞서 탄저균의 순배양에 성공하여 근대 세균학의 기초를 공고히 했으며 1881년에는 고행배지(固形培地)를 만드는데 성공했고 1882년에 마침내 “결핵의 원인”이란 제목으로 결핵균 발견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는 이 발표에서 첫째 결핵에 걸린 생체 병변에서 결핵균이 발견되어야 하며, 둘째 발견된 결핵균을 인공배지에서 순수하게 배양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분리 배양된 결핵균을 실험동물에 접종했을 때 결핵병변을 일으켜야 하며, 넷째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동물의 병변에서 다시 결핵균을 분리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을 완전무결하게 충족시켰다.

이 불멸의 업적을 남게 한 그 네가지 조건들은 오늘날까지 “코흐의 4원칙”이라고 일컬어지며 세균학의 근본원리로 통용되고 있다. 그 당시 유럽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사회의 근대화와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결핵도 크게 만연해 주민 7명중 1명이 결핵으로 죽어 갈 정도였다고 코흐는 그의 논문에서 술회하고 있다.



→1882년 3월 24일 Robert Koch는 결핵균 발견을 발표했으며 그 논문 "결핵의 원인론"을 골 Berliner Klinische Wochenschrift 에 게재했다. 코흐의 원저 논문 첫 페이지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자연과학의 진보는 700배까지 확대가능한 현미경의 성능개량과 독일 염색공업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그것은 코흐가 결핵균을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코흐의 결핵균 발견은 수천년간 혼미를 거듭했던 결핵의 원인에 대한 구구한 설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인류가 싸워야 할 적의 본체를 알게 됨으로써 인류와 결핵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개가를 올리게 되었다

코흐는 1943년 12월 11일 북부 독일의 소도시 클라우스탈에서 태어나 1910년 5월 27일 휴양지 바덴바덴에서 심장병

↓코흐에 의한 결핵균의 발견은 결핵과의 오랜 싸움에서 정취한 인류의 위대한 개가였다  
결핵균의 발견으로 결핵의 진단학, 예방과 치료법 등이 발전할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그 관리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로버트 코흐 원내는 확대한 결핵균



발작으로 67세의 생애를 마감했다. 그의 결핵균 발견은 결핵의 병리조직학, 세균학과 함께 진단 및 치료법의 괄목할 진보를 가져왔으며 마침내 1944년 "스트렙토마이신" 발견과 연이은 강력한 항결핵제의 개발로 오늘날 단기화학요법을 가능케 했다. (한국결핵사 김대규저 발췌)